갈보리 선교회 정기간행지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138-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314-10 본부: TEL, FAX 423-2826 회장: TEL, FAX 554-2319 Email Telpa61@Sinbiro. co. kr

제1호
1997

창간사

브라가의 소식들을 창간하면서

김 승 석 목사
(회장 · 충만교회)

갈보리선교회가 발족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풍파 속에서도 중단없이 모든 사역들을 열심히 그리고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수나 칭찬도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이사님들과 회원교회들, 후원회원님들과 단원들 그리고 갈보리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선교회는 참으로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수백, 수천 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고 한 손아귀의 조그마한 눈뭉치가 고난의 빙설을 구르면서 커다란 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찬송하며 전도하는 「갈보리중창단」이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규모가 커지면서 합창으로 정기연주회와 전도집회를 하는 「갈보리노래선교단」이었고 그 다음에는 라디오 방송의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여(기독교방송 '찬양의 꽃다발') 전파를 통해 보다 널리 찬양과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고아원, 양로원, 교회전도집회 외에 경찰서 유치장 전도를 실시함에 따라 여러 팀으로 나뉘어 사역하게 되었고 이어서 군부대와 교도소와 중 · 고 · 대학교 전도로 사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현재는 각 분야별 전문 전도팀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었고 또한 해외순회전도를 통해 각국 선교와 교포교회 성장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해외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역하는 「갈보리선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들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고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더 큰 송축(브라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이 『브라가의 소식들』를 발간케 되었습니다.

본 회의 사역들이 찬송과 위쉽댄싱과 드라마, 판토마임, 말씀, 기도 등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복된 길로 이끌고 있는 바 이것은 옛날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적군들이 전멸케 하셨고 여호사밧군대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송축한 것과 같은 역사이기에 이 『브라가의 소식들』을 보시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과 함께 크게 송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제명 소개

여호사밧왕이 이방동맹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갔다.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 적군들끼리 치게하여 진멸케 하셨다. 유다군대는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다(대하20장, 브라가는 '송축'의 뜻).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선교회도 각 팀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춤과 드라마와 악기연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이끌게 하시므로 그 모든 소식들을 한 데 모아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송축을 드리고자 이 소식지를 「브라가의 소식들」(Bracah Valley News)로 정하게 되었다.

후원회원, 단원 가입신청 안내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본 회 사역을 위해 수요일 밤 훈련 시간(하절기 오후 7시 30분, 동절기 오후 7시)과
공휴일과 주일 저녁(월1~2회)의 전도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후원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자신이 책정한 후원회비를 본 회 MICR 용지를 사용하여 송금하면 됩니다.
(MICR 용지는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 입 신 청 서

가입자명 : (교회는 교회명, 개인은 개인명, 단체는 단체명을 기입)

대표자명 : 직 위 :

가입자 또는 대표자 생년 월일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교회(단체)–

소속 교회명:

소속 교단 :

후원회비 : 월 원(후원회원만 기록)

상기 본인은 귀 선교회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귀회의(후원 회원, 단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희망란에 ○표 하세요

199 년 월 일

갈보리 선교회장 귀하

갈보리 선교회를 위해 수고 하시는 분들

선교회장 : 김승석 서기 : 주정림 회계 : 윤정화 부회계: 박지연 감사: 김진문
이 사 회 : 이사장 : 박신봉 서기 : 송부근 회계 : 김진문
실행이사 : 박신봉, 송부근, 김중석, 정이남, 김중남, 박광제, 우종하, 오성환, 김승석
운영이사 : 도승현, 박영언, 김명환, 최태근

실행위원회 : 위원장 : 김승석
간 사 : 김철우(차량, 컴퓨터, 홍보), 박지연(행정), 이형석(기자재),
백주현(워쉽댄싱, 의상), 이윤석(음악), 장항석(엔지니어)

후원회
차인자 외 여러분들

브라가의 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 행 인 : 김승석

편 집 인 : 김철우

편집위원 : 박지연, 백주현, 이형석, 이윤석, 윤정화

인 쇄 : 진리와자유(T. 268-3604)

발 행 : 갈보리 선교회 홍보위원회

■ 온라인번호

• 국민은행 825-21-0082-437(김승석) • 서울은행 27907-0386017 (김승석) • 상업은행 146-08-237723 (김승석) • 한일은행 138-163174-12-001(김승석)
• 제일은행 204-20-238677 (김승석) • 외환은행 100-19-14709-1(김승석) • 농 협 017-12-077384 (김승석) • 체 신 부 013656-0025660 (김승석)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제13차 국내 순회 전도보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아래와 같이 제13차 국내순회전도를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기에 먼저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금번 집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가. 일　　시 : 1997년 7월 28일~8월 22일(3주간)〈8월 첫주간은 제외)〉

나. 대상지역 : 충청남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백령도

다. 대상기관 : 낮시간—군부대, 특수기관 / 밤시간 — 일반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 — 단장, 선교회장, 김승석 목사(서울 충만교회)
2. 메시지 및 지도위원
   첫째주간: 송부근 목사(성남 열리는 교회), 김중남 목사(태안 파도교회)
   둘째주간: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태화교회), 갈동수 목사(서울 동광교회) 오창환 목사(부안 대동교회)
   셋째주간: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태화교회), 정이남 목사(이리 임상교회) 천태근 목사(대전 성남제일교회)
3. 단원 — 주정림(서기, 증가성결교회) 박지연(간사, 충만교회) 임선태(간사, 충만교회) 김철우(간사, 충만교회) 백주현(간사, 충만교회) 장항석(엔지니어, 인천승의감리교회) 윤정화(회계, 충만교회) 이형석(충만교회) 김현철(충만교회) 임유리(충만교회) 김현성(충만교회) 김경란(울산태화교회) 유은경(대전중앙감리교회) 박충인(울산태화교회)

마. 집회 일정

	1주	2주	3주
주		8/10 인천 동암교회(김종열 목사)	8/17 인천 무지개교회(박학원 목사)
월	7/28 충남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노회장: 연용희)	8/11 인천 신명보육원(김은중 목사)	8/18 백령도 중앙교회(홍성문 목사)
화	7/29 충남 태안 의항교회(이창섭 목사)	8/12 충남 아산 모산제일교회(박재규 목사)	8/19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최봉석 목사) 백령도 화동교회(장봉춘 목사)
수	7/30 32사단 98연대 나눔교회(정해영 군종) 충남 천안 천안중부교회(문용권 목사)	78/13 김제 영광의 집(김석규 목사) 하사관학교(김영길 목사)	8/20 백령도 중화동교회(전용류 목사)
목	7/31 32사단 98연대 2대대(이우삼 목사) 충남 천안 삼은대길교회(이성규 목사)	8/14 충남 아산 가나안우리집(김성혜 원장) 충남 아산 온양갈보리교회(도승현 목사)	8/21 백령도 진촌교회(박용성 목사)
금	8/1 충남 천안 천안제일교회(이한우 목사)		8/22 백령공군기지(김효곤 목사)
주	8/2 충남 논산 연무대교회(이재은 목사)		

순회전도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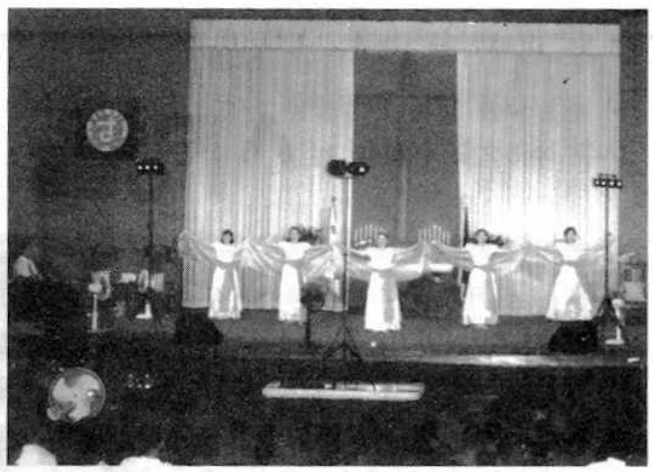
수천명의 군인들과 십여명의 전도자들

백주현
(간사, 충만교회)

순회전도 첫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주일을 맞았다. 오늘 저녁에는 3천명이 모인다는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이전부터 일정표를 보면서 기도해 왔는데 그 때는 그저 아! 굉장히 큰 곳인가 보구나! 하며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도착해서 보니 보통 큰 정도가 아니었다. 실로 우리 모두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 넓은 강단위의 우리 모습은, 또 그 넓은 공간을 가득메운 수 천명 앞의 우리 모습은 어느때 보다도 외소해 보였다. 수 천 장정들앞에 고작하여 십여명이 앞에 선 집회였다. 내 마음 속에 문득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다. 수 십만명을 전멸시키는데 사용되었던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드온의 3백용사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쳤다.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더욱 모여 들었고 나중에는 좌석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통로와 앞 뒤 공간들 또한 문 입구마다 심지어는 들어오지는 못한채 머리만 간신히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내민채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연무대의 책임맡은 상관 한 분

은 우리가 도착하여 장비를 설치 후 식사할 때 나이도 어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좀 염려가 되셨는지 '군인들이 집회중에 드나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등의 말씀을 하셨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였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졌다. 그들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의 두 팔은 예수님께로 높이 올려지게 되었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힘차게 올려드리게 되었다. 연무대를 떠나오면서 우리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일 등에 관해 생각하며 더욱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 그런 은혜를 누리게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섬이 되다

임 유 리
(단원, 충만교회)

백령도 이곳은 참 멋진 섬이다. 이곳에서 순회전도 4일째를 맞고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다. 무공해 자연, 기이한 암석, 풋풋한 사람들의 인심,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섬이다. 또 주민의 70%이상이 크리스천이고 특히 중화동 마을은 주민의 100%가 크리스챤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도 이러한 기독교 섬이 있다니 정말 축복받은 곳인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끼칠 곳은 새롭게 성전을 지은 진촌교회이다. 진촌교회에서는 이틀 전에 해병대 군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었고 오늘은 진촌교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게 되었다. 넓은 실내 높은 천정 멋진 악기들 서울의 어느 교회 못지않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외딴 곳에 이런 멋진 교회가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었는데 …집회가 8시에 시작하는데 7시 40분이 되었는데도 반도 모이지 않았다. 단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채워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8시에 단위에 섰다. 좀전 보다 많은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집회에 임했다. 한 곡, 두 곡 찬양이 흐르고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분들도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해 자극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다.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역사한 것이다. 구속의 은총이 이들에게 다시 뜨겁게 임한 것이다.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마다 아멘.아멘으로 화답하고 활짝 웃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였다. 우리는 같은 찬송과 메시지, 드라마의 프로그램으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단원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도전을 얻게 하심을 언제나 체험한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다. 오늘도 백령도 이곳 진촌교회에서 하나님의 치료, 감화 감동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린다.

● 이사 목사님의 편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하려 함이라. (요 1:6-7)

우리 갈보리 선교회는 군더더기 없이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단원들 개인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원망 불평없이, 열심히 땀흘리며 선교활동을 하고있는 우리 갈보리 선교단원들이야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수고에 대하여 인간의 어떤 위로도 적당치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과 즐거움을 찾아 모든 정성을 쏟는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간들과 정성과 사랑과 땀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 장애인들, 고아들, 노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까지 아낌없이 쏟고 있음을 볼 때 저는 이번 제 13차 국내 순회전도 중 백령도 순회전도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발견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좇아 다니며 살아갑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좇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좋아하고 좇느냐에 따라 칭찬이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빛을 좇아 전력하는 갈보리선교회와 단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강한 용기와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리 임상교회 **정이남 목사** 드림

사명을 잃어버릴 뻔한 나

윤정화(회계, 충만교회)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 할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나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과 언니들, 동생 모두가 불신자이다. 나는 갈보리선교단원으로서 열심히 복음 전파의 대열에서 뛰면서 보람있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입시철이 되어 대학입시를 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울의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서울의 대학이나 전문대도 다 실패했고 먼 지방의 전문대의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고귀한 사명을 쉽게 잊기로 한 것이다.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 날에 목사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우쳐 주셨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았고 가족들에게 지방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버님은 군인이시기에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그날 밤 언니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다. 그리고 3일 후 엄마가 올라오셨는데 또 역시 나를 핍박하였다. 이틀 후 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그날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전의 아버지가 아니셨다. 나를 귀여워해 주셨던 아빠는 너무도 험악한 모습이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심하게 매를 맞았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매맞는 나를 보시면서 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셨다. 부모님과 언니들 모두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분들이 아닌 딴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때 '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로구나' 하고 알았다. 나 한 사람마저 예수 못믿게 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저토록 우리 가족들을 사용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다. 그때 나는 그동안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사탄의 역사'에 대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아빠는 나의 소중한 머리마저 사정없이 다 잘라버리셨고 나를 2층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그셨다. 나는 여기서 결코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우기 내일 갈보리선교단이 군대전도집회를 가는 날이므로 반드시 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가족들이 잠들었을 시간에 창문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방충망이 막고 있었다. 나는 그 방충망을 있는 힘을 다해 뜯고 창틀에 매달려서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땅이 너무 멀었다. 한 10분쯤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 주세요" 기도하고 뛰어내렸다. 다행히 발목이 다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발각될까봐 신발도 벗은 채로 두려워서 교회를 향해 뛰었다.

나는 잘려나간 머리를 감추기 위해 예배 때에도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고 나는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날 나는 갈보리군부대 집회 때도 잘린 머리 그대로 무대에 나섰다. 사람들이 내 흉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전도하는 일, 나의 거룩한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흉보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지금 나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전 생활로 돌아왔다. 나의 회개와 기도로 이제는 가족들도 이전과 같이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잠깐 그 귀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 하다가 결국 사탄이 우리 가족 전체를 총동원하여 너무도 아프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종과 미리 상의만 했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탄의 시험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너무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 할 때 사탄은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리려 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영적싸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그래서 나처럼 사탄에게 잠시라도 당하는 심령이 없기를 바란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소서. 아멘.'

군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성전에 홀로 남았을 때 조금전까지의 그 뜨거운 열기가 꿈이 아니었나 싶게 아쉬웠습니다. 제발 그 때의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곳의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인연이 있나 봅니다. 처음 갈보리 선교회에서 위문공연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고 보니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다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친근감이 생겨 그렇겠지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공연을 관람하면서 아!란 탄성과 함께 95년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머리를 빡빡 깍고 훈련복에 흙을 묻히고 철모를 쓰고서 땀흘리던 훈련병시절이었지요. 그 때 수요일, 주일 종교행사시간은 제게 신교대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훈련받다가 맞이하는 주일 종교행사시간. 그 예배시간이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로왔는지 모릅니다. 다시 들어가보지 못할 줄 알았던 교회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교대 6주 훈련중 5주차 8월 중순에 35사단 충경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환희와 감동, 은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은 많은 형제들에게 제가 훈련병시절에 느꼈던 그것을 선사했으리라 믿습니다. 뒤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제대로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병사들은 전에 제가 받은 감동을 맛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생의 귀한 때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아무쪼록 지방 순회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빛날겁니다. 전도의 큰 결실을 맺길 바라며 하나님의 성사업에 열심인 여러분들께 그것에 합당한 지혜와 축복이 있길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육군 35사단 영광 올림

군에서 온 편지

병장 **김봉석**
해병대 제 6여단 62대대 7중대

"이 자리에 모인 6여단 장병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먼 백령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옮긴 갈보리 선교회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의 나이 22세 입니다. 주님을 알고 지낸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찬양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맑은 웃음으로 앞에 있는 해병장병들은 일반 가수들의 노래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형제, 자매의 찬양에 가슴으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세상에 주님의 찬양보다 좋은 노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면서 목사님의 설교 때 제대로 들은 적이 있다면 아마 열 손가락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옆집 아저씨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착각 할 뻔 했습니다. 주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극에서 주님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깨끗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이 모두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인줄 몰랐습니다. 힘든 군생활 속에서 갈보리 선교회를 만난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남은 군생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것이고 전역해서도 언제나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해병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대원은 영원한 해병대원"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말이 생겼습니다. "한 번 나의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말 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선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해병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님이 계시니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전파로 천국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가는 길이 이제는 비좁을 것입니다. 필승 !

부족한 나, 능력있는 복음

임선태
(간사, 서울 유치장전도 A팀장, 충만교회)

난 매번 유치장 전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아!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나 또한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변화를 받아야하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바쁜 토요일날 유치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의 이런 모든 생각을 지워 버렸다.

오늘 내가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일생의 단 한 번의 기회, 즉 예수님을 만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의 걸음을 유치장으로 옮기게 하였다. 처음에는 단원들이 어색해 했으나 차차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나의 부족한 말솜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케 하실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곤 했지만 점차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부족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던 나에게 반드시 이 시간에 이들을 결신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기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한 마디씩 따라서 결신기도하는 순간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보람된 시간이다.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는 부족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사람들이 더욱 믿음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같은 소중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물질과 수고로 함께 할 사람이 더욱 늘어나서 보다 많은 곳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이 좀더 큰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있었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 싸움

김대선
(유치장전도 대전팀장, 대전충현교회)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매주 유치장 안에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유치장전도를 다닐 때는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유치장선교를 다니게 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나도 죄인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그들과 나의 차이점은 죄를 용서받았음과 죄를 그냥 가지고 있음이 아닐까?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유치장안에 퍼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기도하지만 소설책에서 눈을 떼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도를 틀어놓고 발을 씻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영혼 속에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었기에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영접기도를 하자고 할 때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는 가슴벅찬 감동이 다가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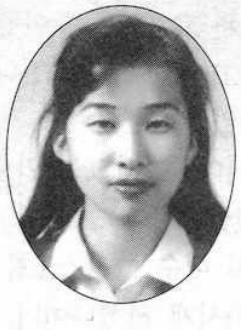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유치장전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정말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매주 느끼고 있다. 유치장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유치장 전도는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허락을 받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하는데 경찰서에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기에 기도의 힘이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다. 후속 관리를 맡는 집사님의 전도가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사회에 돌아와보니 아는 것은 없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누가 데려가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변해 버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집사님의 수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유치장 전도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지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자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소망 있는 장애인 전도

박지연
(간사, 장애인전도팀원, 충만교회)



우리 장애인전도팀은 어린 3－4살 아이부터 30대의 어른까지 정신지체부자유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에 격주로 월요일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혼자 힘으로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어서 일일이 돌봐줘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먹은 음식을 소화도 하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또 옆의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다.

대부분이 말을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한다. 다만 먹고자고 할 뿐 그들의 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매일 똑같은 것 같았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전도했다. 그래서 못 알아 들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15살 영철이에게 전도폭발을 실시해 보았다. 뜻밖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였다. 잠시도 가만히 못 있던 아이가 진지하게 듣고 성경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며 재미있다면서 또 들려 달라고 조를 정도로 영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영육간의 문제를 위하여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도록 기도했다. 30대의 한 소경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봐주면서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였으나 성경을 배우고 선물로 받은 점자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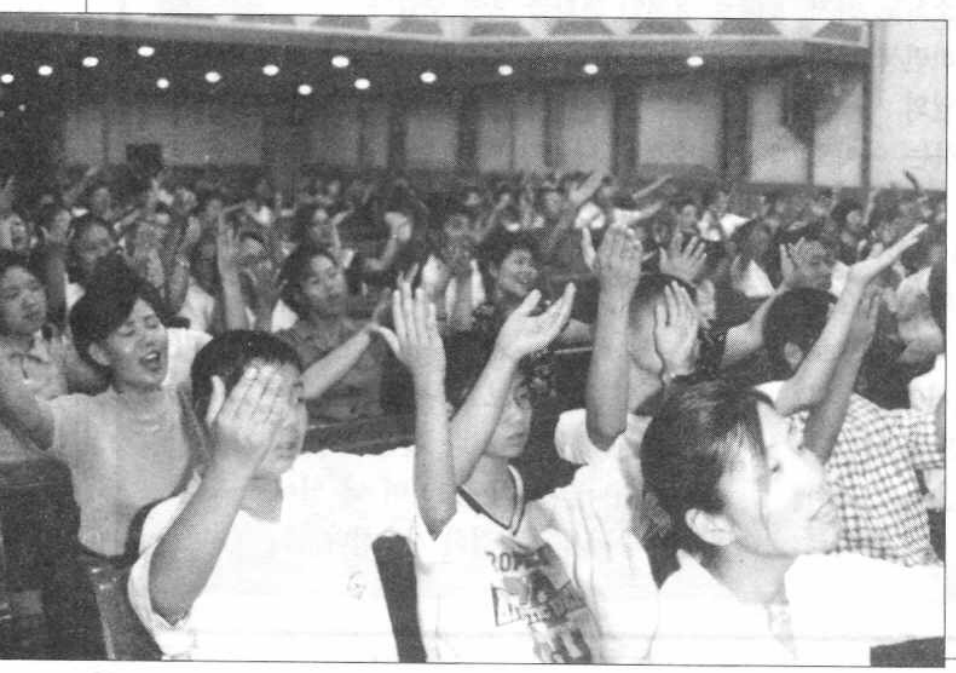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다.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인데 이런 일에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일에 더욱 능력있는 종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방황 속에서 만난 예수님

김철우(간사, 충만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결혼 후 아들을 낳고 주인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오후 예배는 가끔, 수요예배는 직장 핑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스포츠중계를 하면 슬쩍 피하곤 하였고 주일날 결혼식이나 생일잔치가 있는 날이면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되지만 결혼식,생일은 한 번 뿐이지… 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술자리가 있으면 사양치 않고 어울리기도 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런 나와는 달리 아내는 아이를 업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내게 그 날 설교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 내용을 전해주곤 하였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전날 밤 TV를 늦게까지 보고 잔 덕분에 내 머리는 방아질하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하게 기침감기를 앓게 되었다. 몸살감기려니 하고 대수럽게 생각하지 않고 약을 사먹었으나 기침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원인은 담배를 피워서 기관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었고 의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서 당분간 끊고 피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침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잠자는 아내를 깨우고 아이도 깨울 정도로 심하더니 나중엔 식은땀이 나고, 하도 기침을 해서인지 가슴과 복부가 아파서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 였다. 그래서 나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젠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하고 아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는 온 몸에 힘이 다 빠져 맥없이 그만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누렇다 못해 시퍼런 가래가 계속 나오더니 기침이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때가 되어서 났구나 해서 한 달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술자리에도 어울리고 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순조롭게 되던 일들이 꼬이더니 심지어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고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기계를 잡고 끙끙 앓다가 해결을 못하자 회사가 비상이 걸리고 담당자는 상사에게 혼나고 유지보수계약이 파기되고 고개들지 못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 또 기술자가 자기담당분야를 해결치 못하였을 때의 절망감이 밀려 왔다.

엎친데 덮친다고 이런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잘 거래하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사무기기를 임대해 주던 거래처의 사장이 소리없이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상품가치도 안되는 기계를 걷어올 때는 내 자신이 싫었고 짜증이 나 운전하다가도 내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면 열등감에 오기가 생겨 상대운전사하고 싸움을 하며 신앙이란 것을 완전히 팽개쳐버리게 되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까지 하게 됐다. 성격이 급해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생기고 가정불화가 일더니 아내는 멀어지고 아이는 허약해서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다. 생활은 궁핍해지고 밀린 빚 갚기에 허덕이다가 새벽에 지역신문을 함께 돌리는 갈보리선교회 단원인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자매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전도란 것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투정부리는 것으로 알았고 또 기도라고 했는데 당장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꼬이고 어려워진다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던 것들, 내가 벌려 놓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으며 돌이킬 줄 모르고 오만하였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다니지 않던 교회를 그 자매의 인도로 충만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주일 오전,오후를 다 참석하며 온전히 주일성수를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내게 생전 처음으로 전도팀 대열에 끼어 유치장 전도라는 것을 하게 해 주셨다.

차가운 유치장바닥에 웅크린 사람들을 보았다. 그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과 나는 있는 장소만 틀릴 뿐이지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지체장애자 시설과 고아원을 찾아봤다.

나는 내 자신만 사랑해 왔음을 깨닫고 심히 부끄러웠다.

그 후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 저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왔고 그 죄 때문에 지옥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나이다. 그 예

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 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세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의 생활은 차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내 아들은 감기가 걸리더라도 하루만 잠자고 나면 낫고 병원 한 번 찾아보지 않게되고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으며 나 또한 믿음생활에 열심을 더하게 되었다. 운전을 하다가 난폭한 운전자를 보면 이웃집 아저씨가 연상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신자로 보이게 되었다. 지금 당장 부자는 되지않더라도 말씀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청종케 되었다. 한 번은 강변도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 정면충돌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자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말씀을 온 몸으로 경험한 귀중한 사건이었다.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말씀이 있다. 어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너도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자가 되라"고….

국군형무소에서 온 편지

국군형무소에서 ○○○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보잘것 없는 수감자 중의 한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크리스마스 때 갈보리선교단의 공연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시력이 나빠서 선교단 여러분의 모습을 뚜렷이 못 보았으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의 성가와 흐릿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써가며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갔건만…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말 한마디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존심에 고개 숙이고 있었음을 후회했기에 이렇게나마 글을 드립니다.

연극이 끝이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비교도 해보고 생각해 보았고 내 신앙생활에 대해 깊히 반성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릴적에 친구의 인도로 잠깐 다니다 전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란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고 겉돌기만 했던 내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행복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타학교 봉사클럽과 함께 고아원, 양로원, 정신박약자 수양소를 방문하고 도와 줄 때 기쁜 마음에 젖어보기도 했었지만 입장이 바뀐 현실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 나름대로의 일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건만 난 국방의 의무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죄인이 되어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람되게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글을 쓰고 싶건만 알고 있던 주소들이 가물거려 쓰기가 그렇고 또 글을 드리고 싶은 처지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분이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이 글을 읽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곳에 오셔서 기쁨과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갈보리선교회 목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여러 자매님과 형제님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성스러움을 느끼듯 여러분들에게서도 사랑과 행복을 느낍니다. 갈보리선교회 여러분의 새해는 복되고 행복으로 가득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다 많이 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 갈보리선교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이 갈보리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번 저희 예본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던 기억을 떠올리니 그 당시의 뜨거움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시고 난 후 땀과 눈물의 기도로 지펴주신 찬양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저희 청년지체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부터 늘 해왔었지만 막상 입을 열면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과 기교의 표현이 앞서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보리선교단의 찬양집회를 통해 '찬양은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영혼까지 드려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보시고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힘차다는 것과 준비된 찬양이다.'라는 것임을 볼 때 그 동안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방울을 하나님께 드려오셨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짐작에 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면류관과 상급들을 예비하고 계실 것을 기쁨으로 확신합니다. 학업의 부담 속에서도 먼 곳을 달려와 아낌없이 찬양을 드려주신 고등학생 단원들과 특별히 저희들의 기도제목이 되고 있는 '가발 쓴 자매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찬양 이외에도 은혜가 되는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여러분들의 건승과 자매님의 핍박하는 가족구원을 위해 저희들도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든든한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바라만 봐도

힘이 솟고 마음이 통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보리 선교회를 더욱 더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식지 않으며 찬양하는 손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젊음의 한 토막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그 날의 뜨거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갈보리 선교단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부족한 글을 맺을까 합니다. 오직 예수!

전주 예본교회
청년회장 **김동인** 드림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마무리 단계

본 회의 모든 사역 내용과 중요소식들을 국내 및 해외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필요한 각국의 선교에 관련한 정보수집을 신속히 하고 통신을 통한 상담과 인적, 물적자원의 발굴을 위해 그 동안 컴퓨터 요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김철우 간사를 비롯하여 장항석, 윤정화 간사가 마지막 작업에 땀을 쏟고 있다. 조만간 각종 선교소식을 모든 분들의 컴퓨터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집회방식 준비

본 회 특별전도팀이 국내 외의 특수 단체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활발이 전개하고 있는 특별전도집회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시각적인 효율성을 살리기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과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형화면으로 찬송가사와 메시지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동화상을 통해 필요한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집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모든 회원들의 기도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 기술적인면에서는 현재 요원들이 조금만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특별전도팀 상비팀 구성이 시급하다.

현재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전도팀의 사역이 날로 증가해 가고있는 전도의 기회들을 신속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의 경우 공휴일과 주일저녁(월1~2회)을 통해 모든 집회요청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데 일반교회의 경우 이와 중첩되어서 더 많은 집회수요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팀을 상비팀으로 전환하여 평일 저녁시간을 활용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상비팀으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이 단원들이 무보수로 사역할 수 없고 우선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학비보조라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단원 한 사람을 개인이나 교회가 담당하여 후원하는 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팀이 한 두 시간을 통해 수백 또는 수천 명을 결신시키며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팀의 단원은 훌륭한 선교사가 아닐 수 없다. 선교사 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품고 이들을 지원할 후원자를 찾고 있다. 회원님들은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특별전도팀의 단원 수는 약 12명이다.

주께서 쓰실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주신 탁월한 문명의 이기들(기자재)을 귀하게 사용하여 전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기자재들도 사람처럼 훌륭한 전도자 또는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의 여러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기자재가 있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핀 마이크 6조

지금 5명의 단원이 핀마이크를 이용해서 무대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없는 다른 단원들의 찬송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멀티 케이블

기자재를 통괄조절하는 위치에서 강단과의 거리가 멀어 유선마이크의 연결이 어려우므로 여러 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접속시켜 먼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을 멀티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케이블이 노후함에 따라 접속이 불량하여 소음이 발생하므로 새 케이블로 교체해야 합니다.

3. 모니터 스피커

무대에서 단원들이 반주와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하고 단하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싱어들도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하는 것이 모니터 스피커인데 현재 사용하는 모니터스피커(무대용 2개)가 노후되어 잡음을 일으키고 있고 단하용 스피커(1개)가 없어 목사님과 싱어들이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공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 스피커 3개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4. 남자용 한복의상.

동절기 연주와 특히 외국 순회전도시 한국고유의상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주정림 단원의 헌금으로 여성용 한복의상은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남성들 한복의상이 없어 양복을 착용하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용 한복의상 제작이 필요합니다.

5. 무전기2대

전도집회를 위해 여러 대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도로 사정상 분산되게 됨으로 행로가 엇갈려 많은 지장을 당하였기에 미국순회 전도시 한 단원의 헌금으로 무전기 2대가 마련되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통상 차량이 3,4대로 이동하게 되므로 무전기가 2개가 더 필요합니다. 단원들 전체가 이동을 할 때 또한 전도공연 중에 따라 떨어져서 준비하는중에 서로 필요한 사항을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6. 멀티미디어 시스템 장비

전도집회시 찬송의 가사와 메세지의 요지, 성경구절등을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내 주고 동시에 동영상 등 특수효과를 나타내주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스크린과 프로젝터와 몇 가지의 소프트웨어와 기재가 필요합니다.(기본적인 컴퓨터 시스템은 현재 갖추어져 있음)

위와 같은 기자재를 헌납해 주실 분은 본 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님들은 이상의 기자재들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온 손님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지 목사님 두 분과 십여 명의 성도들이 한국선교사 한 분과 함께 지난 9월 3일 본부교회(충만교회) 수요 기도회 때에 방문했다. 잠깐 주어진 시간을 통해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특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게 되었고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과 힘을 얻기위해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중이었는데 먼저 몇 몇 큰 교회를 돌아보았고 사전에 예고없이 본부교회를 찾아온 것 이었다. 그들은 본부교회 성도님들과 단원들이 여러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기도회 후에 가지게 된 담소를 통해 결코 규모가 크지않은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저들은 회장목사님을 가운데로 하여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었고 단원들이 연습하는 광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언젠가는 갈보리선교단이 남아공에도 가서 순회전도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짧은 만남이었으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다.

회원 소식

성전을 신, 증축함

파도교회(김중남 목사)는 비좁고 오래된 성전을 헐고 400평 대지 위에 150평 건평의 새성전을 건축하고 마무리 공사에 김목사님을 비롯해 온 성도님들이 기도와 정성을 쏟고 있다. 조만간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 모든 회원님들의 기도를 바란다.

학교건물을 구입, 이전함

대동교회(오성환 목사)는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건너편에 위치한 폐교한 대동초등학교(부지 5000평, 총건평 500평)를 매입하여 수리하고 8월 29일 성대한 이전예배를 드렸다. 대동교회는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교육시설과 양로시설 등을 세워 지역복음화와 사랑실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성전신축 이전

신제주제일교회(우종하목사)는 시내 상가건물을 벗어나 아름답고 시원한 곳에 748평 대지를 마련하고 94평의 성전과 교육관을 신축하였고 9월 21일에 11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새로운 후원회원 가족을 환영함

1. 최해춘 집사—울산 태화교회(박신봉목사)집사님으로 본 회 본부교회도 방문해주시고 단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격려해 주셨다. 현재 울산에서 약국을 경영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계신다.

2. 심경식 성도—제 12차 국내순회전도시 전라북도 야공단부 대집회 때에 만난 군인으로서 9월 제대와 함께 기도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 하였다. 제대 후에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대 후 더욱 당당한 단원으로

해병대에 입대하였던 이형석 단원(충만교회)과 육군에 입대하였던 이윤석 단원(충만교회)이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욱 건강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제대하여 즉시 선교회와 충만교회로 복귀하여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있다. 나라의 옷과 밥을 3년 어간 동안이나 공짜로 받고 성장했으니 이웃사랑에 그 만큼 더 헌신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또 하나의 군 전도자가 되어

그 동안 기자재간사의 많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특별전도팀 단원과 유치장 전도팀장으로 충성스러웠던 임선태 형제(충만교회)가 해군에 입대하면서 세 번째 군 전도자로 파송되었다. 임 간사는 원래 8월 초순경 육군입대 예정자이었으나 제13차 국내순회전도를 마치고 입대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뒤에 입대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더 긴 해군에 입대신청을 한 것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더 희생하는 길을 선택한 임 간사의 행위가 모든 단원들의 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외 군전도자로 파송된 이기성 형제(해병대)와 이성훈 형제(육군)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이 귀한 군 전도자들을 위해 모든 회원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갈보리선교회가 하는 일

국내 사역

1. 경찰서 유치장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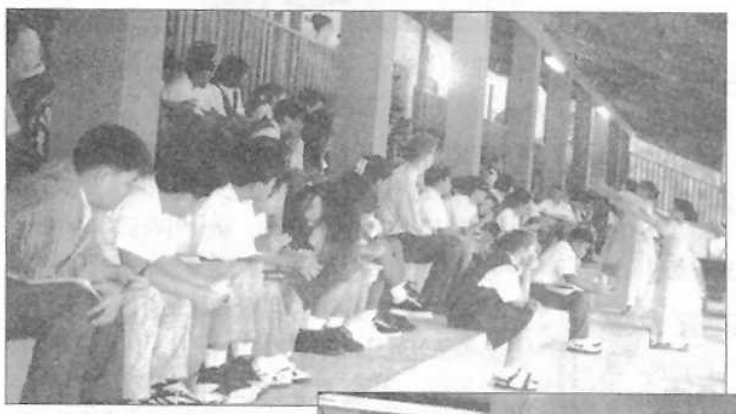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시간에 격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찬양, 위쉽댄싱, 간증, 말씀, 간식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현재는 서울에서 2개팀, 대전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2. 장애인 전도

월요일에 격주로 정해진 장애인 수용처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 목욕시키기 등 봉사와 기초성경공부, 사랑의 교제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서울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3. 특별전도팀 전도

군부대, 중·고·대학교,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등 특수기관 또는 교회와 지방순회전도를 위해 워쉽댄싱, 드라마, 판토마임, 말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조직된 팀으로 평상시에는 모든 공휴일과 월 2회 주일 오후시간에 사역하고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지방순회전도를 함. 공휴일에는 주로 낮과 밤 2회에 걸쳐 군부대전도집회를 하고 순회전도시에는 낮에는 각종 기관에서, 밤에는 각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함.



해외사역

1. 특별전도팀 해외순회전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에 각 국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2~3주간 동안 각 국 현지인들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순회전도 함. 지금까지 11개국에서 사역하였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외순회전도시에는 현지 언어로 모든 것을 수행함.

2. 선교사 양성 및 해외선교사 지원

선교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 현재 일본, 필리핀, 싸이판, 중국등 5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단원훈련사역

1. 정기모임 훈련

매주 수요일 저녁에 본부교회(충만교회)에 회집하여 영성훈련과 각종 사역연습을 함

2. 7월과 12월, 1월에는 국내외 순회전도를 대비하여 합숙하며 훈련함

헌납 · 헌금하신 분들

팩시밀리—김철우 간사(충만교회)의 헌납으로 선교회 사무실에 팩시밀리가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불편하던 사무에 큰 유익을 얻게 되었고 군대전도등 각종 긴급한 교신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헌납하였다.

프린터,인터폰—군 저도자로 파송되어 군복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이기성형제(충만교회)가 휴가중에 컴퓨터 프린터와 인터폰을 헌납하였다. 갈보리의 살림 늘리는 일에 한 몫을 한 셈이다.

리드기타—임선태 기자재간사의 리드기타 헌납으로 보컬 반주팀이 재구성 중이다. 이형석군의 리더로 이윤석, 윤정화, 김현철, 임유리,유선영(충만교회), 원종석(준단원)이 매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인터넷 가입비를 주정림 단원이 담당해 주었다.

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은 본부교회(충만교회)에 모여서 수요기도회를 드리는 동시에 갈보리 선교회 단원들의 정기모임이 있는 날이다. 기도회 시간에는 단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말씀과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절기에는 7시30분, 동절기에는 7시에 모임을 갖으며 기도회 후에 간단한 다과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며 단원생일이나 신입단원 환영식 등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 그 후에 사역실무를 위한 훈련과 연습에 들어간다. 현재 갖추고 있는 A.B.C PROGRAM 은 찬양곡과 율동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들은 연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라는 인식속에서 정성스레 훈련에 임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및 판토마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 내기 위한 연습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항상 성령충만함을 주시도록 모든 회원님들의 기도지원을 바란다.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국내 집회

가. 군부대 집회

담양 공수부대/ 광주 통합병원/ 광주 상무대 -2회/ 양평 기갑부대/ 포병59대대/ 1사단 본부/ 철원2사단 포병부대/ 1사단 포병연대본부/ 고창군부대/ 1사단신병교육대/ 1사단예하 독수리부대/ 21사단 66연대2대대/ 26사단본부/ 3군직할화학대대/ 2사단 신교대 -3회/ 경기도 연천군부대/ 21사단 66연대 3대대/ 706특공연대/ 경기도 운천 전방부대/ 포항 해군제9506부대/ 강원도 통천부대/ 육군항공단/ 경기도 춘천2개부대/ 경기도 연천부대/ 제주지역사령부/ 해병기동특공부대/ 경기도 연천 35연대/ 26사단 신교대 -3회/ 경기도 포천부대/ 육군항공대대/ 26사단 7856부대 은하교회/ 57전차부대/ 울산 3935부대/ 7856부대 불무리교회/ 7765부대 762관리대/ 50사단 신교대 -2회/ 3653부대/ 2123부대/ 7501부대/ 국군부산병원/기드온군인교회/ 2646본부 중대 충성교회/ 보병7765부대 연대본부 임마누엘 교회/ 1117부대충성교회/ 7376부대 신병교육대/ 25사단70연대4대대 밀알교회/ 대구 2군사령부 무열대교회 -2회/ 밀물부대 천보교회/ 7317부대 사랑리교회 -2회/ 5152부대 소나무교회/ 39사단 충성교회/ 26사단포병여단228대대 오봉제일교회/ 7895 301부대 시온교회/ 26사단 9200부대 베다니군인교회/ 25사단 비룡부대수색대대 횃불교회/ 26기보사기갑수색대대 기드온교회/ 7856부대 강병교회 -2회/ 5사단 수색대대 시온교회/ 5사단 7895부대 3대대 시온교회/ 35사단 105연대 백오교회/ 보병28사단81연대2대대 성도교회/ 35사단 제2632부대 충경교회 -3회/ 6116부대 659포병대대 소망교회/ 5사단공병대대 참빛교회/ 혜성군인교회/ 8261부대 문바위교회 -2회/ 32사단 98연대 나눔교회/ 9287부대 도하군인교회 -2회/ 7525부대 낙원교회/ 새생명군인교회/ 국군광주병원/ 혜산진 군인교회/ 5사단 신교대 상승교회 -6회/ 5198부대 번개교회/ 2756부대수기사 번개교회/ 28사단3357부대 송죽교회/ 9293 301부대 찬양교회/ 수기사사단 천하제일맹호교회/ 상승열쇠부대35연대 새소망교회/ 3878부대 수도기계화부대/ 2136부대 열쇠교회/ 6163부대 소망교회/ 00사단1여단 비호교회/ 5685부대 기드온교회/ 7895부대3대대 시온교회/ 9293부대4대대 임마누엘약대교회/ 8205부대 산돌교회/ 5198부대 맹호포병교회 -2회/ 36연대 2대대 십자군인교회/ 3287부대 은혜교회/ 5사단 포병연대 선교교회/ 8098부대 백오교회/ 7598부대 1대대 임마누엘교회/ 7895부대시온교회/ 9293부대 2대대 다락방교회/ 8265부대 205특공여단 백호교회/ 7895부대 안전교회/ 8539부대 3대대 횃불교회/ 8567부대 2대대/ 6163부대 공병3중대 복음교회/ 25사단 71연대 3대대 중앙상승교회/ 포항해병 교육훈련단 제2충무교회/ 2136공병대대 참빛교회/ 국군대구병원교회/ 8297부대 온누리교회/ 703특공연대 기드온교회/ 1118야전공병단/ 포항 해병대 충무교회/ 75여단 125기보대대 한마음교회/ 공병2대대 2136부대 참사랑교회/ 70사단 충성교회/ 25사단 72연대 미스바교회/ 육군하사관학교 소망교회 -3회/ 5사단 35연대 1대대 늘부픈교회/ 5사단 7895부대 101부대 상승소망교회/ 32사단 98연대 나눔교회/ 9사단 29연대 3대대 여호수아교회/ 5사단 70연대 1대대 실로암교회/ 25사단 8567부대 상승교회/ 32사단 98연대 2대대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 5포병 여단 6야포단 내 6163부대 소망교회/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5사단본부 열쇠교회/ 9사단 신교대 -2회/ 25사단 36연대 3대대 십자군교회/ 백령공군기지교회/ 2사단 17연대 쌍호교회/ 육해공군 본부교회/ 25사단 70연대 4대대 밀알교회

나. 학교집회

숭전대학교 — 3회,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충청태안지역청소년집회, 서울신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다. 양로원집회

신아원, 제주도양로원, 모슬포제일교회양로원 성애경로원, 복음양로원

라. 고아원, 재활원집회

제남보육원, 고아원, 복지법인흥익보육원영아원, 애증원, 성산정신요양원, 진성원, 제주정신요양원, 한벨지움복지원, 성남보육원, 성보재활원, 서림복지원, 곡성삼강원, 목포공생원, 새벌원, 인천신명보육원, 아산가나안우리집, 김제 영광의집

마. 교도소집회

순천교도소, 안양교도소—2회, 군산교도소, 육군형무소, 전북소년원 정신요양원, 진성원, 광주소년원, 소록도 교도소, 충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진주교도소, 청주소년원, 국군교도소

바. 특별집회

칼빈음악제(칼빈대학교), 제1회선교음악회(YWCA 대강당), 제2회선교음악회(아가페종교음악실), 제3회선교음악회(중앙대학교대강당), 제4회선교음악회(온누리교회), 올림픽전도(주경기장. 올림픽공원 광장), 씽할렐루야전도(88올림픽체조경기장),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집회
치안본부

사. 기타집회

소록도국립나병원, 기독교방송(CBS)—진리의말씀(매주 목요일 오후 5:30), 기독교방송(CBS) —잠깐 들어실까요(매주 목요일 오후 3:50), 기독교방송(CBS)—찬양의 꽃다발(매주 목요일 오전 7:10), 국민은행, 전북기도원, 변화산기도원, 흰돌산기도원, 전국목사장로수련회(경주코오롱호텔), 울산 동강병원, 미스바기도원, 외항선원 초청전도집회 -3회

아. 교회집회

공항벧엘교회(오세관 목사), 성남신광교회, 군산개복교회(김종석목사), 대전 성남제일교회(천태근 목사), 소록도신성교회(김두영 목사), 경기도, 강원도 순회전도시 저녁 지역교회 집회, 익산중앙교회(은준표 목사), 전주성광교회(오초 목사), 영암교회(이충래 목사), 소록도연합교회(김두영목사), 금삼교회(김승권 준목), 울산 목양교회(현광식목사), 양구장로교회(김평목 목사), 옥토교회(김신성 목사), 제주서문교회(김언석 목사), 울산삼양교회(정연철 목사), 대구신일교회(최태군 목사), 부산청학교회(손기현 목사), 대구아멘교회(김명동 목사 -3회), 창원성주교회(이상열 목사), 서산양대교회(이연오 목사), 익산고현교회(최창훈 목사), 목포신화로교회(최기선 목사), 대광교회(강동원 목사), 전남 병영중앙교회(양선경 전도사), 평원교회(이상태 목사), 천안장로교회(이정호 목사), 봉동중앙교회(박종대 목사), 정읍마태교회(양병오 목사), 대구황금교회(박무용 목사), 안양교회(전순기 목사), 강원도 임곡교회, 순창협성교회(박성대 목사), 고흥 녹동제일교회(정충원 목사), 대전삼광교회(이현기목사), 전주송축교회(김응식 목사), 정읍정애교회(박창훈 목사), 소록교회(정윤성 목사), 울산태화교회(박신봉 목사 -3회), 구로제일교회(강풍일 목사), 양구동면교회(김철환 목사), 영광교회(박광재 목사), 강남제일교회(이종희 목사), 신제주남교회(김재석 목사), 성남성지교회(정광수 목사), 경북 지동교회(백창남 목사), 태안성결교회(강형석 목사), 목포호남교회(김명남 목사), 장흥중앙교회(백영태 목사), 목포예손교회(최우식 목사), 하남장로교회(김무환 목사), 신도교회(김춘화 목사), 서산제일교회(여두종 목사), 전주반석교회(나성균 목사), 정읍낙양교회(이삼규 목사), 포항대광교회(이호현 목사), 서울에덴교회(국용환 목사), 원주성광교회(남종수 목사), 부천갈보리교회, 충만교회(김승석 목사), 혜성교회(송부근 목사), 이리임상교회(정

이남 목사 -2회), 금산신평교회(선인순 전도사), 성림교회(김정구 목사), 신풍교회(송길수목사), 태안파도리교회(김중남 목사), 사랑교회(김중석 목사), 전주성복교회(이창남 목사), 동원교회(이수철 목사), 안양동성교회(박영언 목사) -2회, 대전대일교회(김기중 목사), 진주혜성교회(정남철 목사 -2회), 울산심양교회(권주식 목사), 대구대봉제일교회(이광호 목사), 홍성중앙교회(서진영 목사), 대산제일교회(이순상 목사), 목포상리교회(백영규 목사), 광주서문교회(리영숙 목사), 목포영락교회(송귀옥 목사), 태안성신제일교회(이종석 목사), 부안대동교회(오창환 목사), 대구성서중부교회(이동은 목사), 전주우아영생교회(정동철 목사), 부산광안제일교회(이주환 목사), 전주예본교회(최공훈 목사), 의항교회(이창섭 목사), 천안제일교회(이한우 목사), 온양갈보리교회(도승현 목사), 백령도화동교회(장봉춘 목사), 목양교회(이광복 목사), 예산우리교회(황용현 목사), 천안중부교회(문용권 목사), 인천동암교회(김종열 목사), 인천 무지개교회(박학원 목사), 백령중화동교회(전응류 목사), 충남노회중고등부연합수련회(노회장 연용희 목사), 삼은대길교회(이성규 목사), 모산제일교회(박재규 목사), 백령도중앙교회(홍성문 목사), 백령도 진촌교회(박용성 목사)

해외 집회

제1차. 대만(2주간)
산지교회(대북시), 남산교회, 환산교회, 평지교회, 백천교도소, 화사대잔장원(장애인), 백천감옥소, 우화교회, 광복교회, 대동마난교회, 마카오병원, 대동신학교, 대동교회, 대북복음원

제2차. 미국(3주간)
엠마오교회, 온누리교회, 나성충현교회, 하시엔다교회, Radio Korea 방송국 출현, 디즈니랜드 야외공연전도(- 이상 로스엔젤레스)

워싱톤장로교회, 워싱톤소망교회, 북부한인장로교회, 웨슬리안 리타이어먼트센터(미국인양로원), 휄로우쉽교회(미국인교회), 워싱톤 중앙방송국 출연(- 이상 워싱톤)

헤브론교회(2회 연속 집회), 미시간호수공원 야외집회(- 이상 시카고)

안디옥교회, 아가페교회, 말씀교회, 불꽃교회, 뉴욕시 노방전도(- 이상 뉴욕)

비벌리마이너 양로원(미국인 양로원), 제일장로교회(2회 연속 집회), 미연방교도소(- 이상 아틀란타)

하와이 양로원(미국인 양로원), 하와이교회, 에덴장로교회(3회 연속 집회), 와이키키해변 노방전도(- 이상 하와이)

제3차. 태국(2주간)
방콕 할렐루야교회, 방콕시 노방전도, 우돈 국민학교, 우돈휄로우쉽교회, 치앙칸교회, 태국한인장로교회(교포교회), 방콕 오순절교회, B.D.I신학교, 방콕 글로리교회, 태국복음신학교, 와타나 여자고등학교

제4차. 필리핀(1주간)
마닐라장로회 신학교, 자유의섬교회, 마닐라한인연합교회(교포교회), 따긱농구장, 마닐라교도소, 바공바얀교회, 리잘교도소, 라스피냐스교회, 빠라냐께농구장

제5차. 일본(2주간)
요코하마미도리노교회, 동경내리국제교회(교포, 일본인 연합교회), 오사카양로원, 가와꼬시양로원, 오사카 주에수그리스도교회, 동경국립음악대학, 오사카한인양로원, 동경야마데교회, 열매맺는 집 교회, 옥미원양로원, 오사카 기독실업인회 초청만찬 공연(사카이 호텔), 빌리그래함 동경집회 야외전도협력, 오사카 송현교회(교포교회), 성민교회(교포교회), 효고갱선한사마리아인의 교회, 시즈오까교회, 효고갱무고천교회

제6차. 중국(2주간)
현지 사정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음

제7차. 홍콩(1주간)
홍콩제일교회

제8차. 싸이판 (1주간)
커뮤니티스쿨, 싸이판 소년원, 예손장로교회(중국인, 조선족, 한인), 싸이판한인장로교회, 양로원, 예손장로교회(차모르족, 한인), 싸이판성결교회(중국인, 한인), 그레이스아카데미스쿨(유치원, 국교1.2.3.4.5학년, 중·고등학생 -4회 연속 집회)

제9차. 괌(1주간)
리파오파크(야외접도집회), 마이크로네시아몰(쇼핑몰 중앙홀), 괌제일장로교회(교포교회)

제10차. 미국(3주간)
L.A삼성장로교회, 뉴욕안디옥교회, 혹인양로원, 뉴욕말씀장로교회, 호산나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제일연합감리교회, 뉴저지말씀장로교회, 애틀란타제일교회, 성령강림교회, 순복음애틀란타교회, 뉴욕대한교회, 후랭클린양로원, 유니벌시티가든양로원, N.M. Caroll 흑인 양로원

제11차. 카나다(1주간)
CUMNER 양로원(유태인), 성산장로교회

제12차. 베트남 예정

갈보리선교회 유치장전도팀 집회목록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3~5개 팀이 다음과 같이 경찰서 유치장을 전도해 오고 있다.

(서울)
동부서, 강남서, 성동서, 청량리서, 영등포서, 남대문서, 동대문서, 송파서, 노량진서, 관악서, 강동서, 노원서, 서부서, 북부서

(대전)
대전서, 대전서부서, 대전동부서

(기타 지역 - 순회 전도시)
원주서, 강릉서, 삼척서, 속초서, 광주서, 광주서부서, 여수서, 고흥서, 제천서

갈보리선교회 장애인전도팀 집회목록

정신병자요양소, 성음교회 장애자의 집, 늘사랑교회의 장애자의 집, 임마누엘의 집, 하예성 사랑의집, 하남시 나그네의 집,
* 현재는 할렐루야의 집을 격주로 정기방문하여 실시중.